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6호 【루게 제24509호】 주제 103 (2014)년 4월 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갈매기팀과 제비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갈매기팀과 제비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 변인선 동지, 김수길 동지, 오금철 동지, 노광철 동지, 조경철 동지, 리병철 동지, 김명식 동지, 장동운 동지, 윤정민 동지, 한광상 동지, 황병서 동지, 리재일 동지, 박태성 동지, 김승연 동지가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경기를 보게 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축구경기를 비롯한 경기들을 자주 조직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경기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 갈매기팀을 4:2로 이겼다.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으로 환영하였다. 관람자들은 높은 축구기술과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두 팀 선수들의 치렬한 공방전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를 다지였다.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속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제비팀이 없이 파시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구려려해주신 소식을 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련도자께서는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보여 등무들과 함께 답사행군길

을 걷는 심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 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 맛을 보았을것이라고, 그 과정에 조선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이번 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하시면서 미래와 총력산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불황 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인 민망, 로씨야의 이다르-프스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프레스트V방송, 라디오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영국신문 《텔레그라프》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가 3월 18일 라자바트 프라나 콘서트홀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차이나이 룡인이 선출되였다.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24일 부부 메슈에서 진행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로므니아군로자협회, 로므니아조선전선협회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타이준비위원회가 3월 18일 라자바트 프라나 콘서트홀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차이나이 룡인이 선출되였다.

태양절경축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3월 31일 브라체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이란 드라슬레르가 선출되였다.

태양절경축 에스토니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28일 키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에파드르사회주의 광범한 전선당, 주체사상연구 에파드르문화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련대성 에파드르 까나르주협회,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협대성 에파드르 문화협회 위원장 및 문대성 에파드르 문화협회 위원장 등 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튀니지준비위원회가 3월 29일 튀니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튀니지조선전선협회 서기장 잘릴라 엘 페시가 선출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위업에 한생을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게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기에 조선은 만재만미투쟁, 자주와 빈영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태양절경축 인디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디아인민혁명당,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전인디아진보전선, 인디아혁명적사회주의당, 인디아국민대회당, 전인디아조선전선협회, 인디아 김정은로작연구회, 델리종합대학,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3월 31일 브라체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이란 드라슬레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정치문화행사를 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인디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디아인민혁명당,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전인디아진보전선, 인디아혁명적사회주의당, 인디아국민대회당, 전인디아조선전선협회, 인디아 김정은로작연구회, 델리종합대학,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총비서인 국회의원 디. 피. 트리파티가, 부위원장들로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씨따람 에추리와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아를 란잔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집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류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세계정지원로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미술전시회가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탈리아에서 3월 5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자유조국당, 브라질저성련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말레이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이탈리아조선문화협회 등 해당 나라 정당, 단체인사들과 개막식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가 3월 29일 튀니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튀니지조선전선협회 서기장 잘릴라 엘 페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집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타이준비위원회가 3월 18일 라자바트 프라나 콘서트홀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차이나이 룡인이 선출되였다.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24일 부부 메슈에서 진행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로므니아군로자협회, 로므니아조선전선협회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3월 31일 브라체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이란 드라슬레르가 선출되였다.

태양절경축 에스토니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월 28일 키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에파드르사회주의 광범한 전선당, 주체사상연구 에파드르문화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련대성 에파드르 까나르주협회,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협대성 에파드르 문화협회 위원장 및 문대성 에파드르 문화협회 위원장 등 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튀니지준비위원회가 3월 29일 튀니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튀니지조선전선협회 서기장 잘릴라 엘 페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집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심입니다.》 김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향해남도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공세의 첫 공정은 학습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다.

향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무장시키는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학습열풍을 고조시키는 데서 문답식학습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답식 학습은 학습에서 핵심주의를 극복하고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풍을 높이며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상호강화하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 학습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 도당위원회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계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문답식학습을 어떻게 조직하였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문답식학습경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그 준비를 잘하도록 하는데 힘을 냈었다.

특히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문답식학습경연과 관련한 부서적인 협의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경연날자와 참가단위, 조직은 영남도를 도당위원회의 결정에 조야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문답식학습경연준비가 최우선임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 역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연날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지도를 짜고들었다.

문답식학습경연이 선수분위로 진행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직사업도 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문답식학습

열을 하기 하루전에 임의의 대상들을 선정해주시는 것이다.

좋은 점이 있었다.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임의의 시각에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수준과 능력이 각이한 조건에서 원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도당위원회는 능력있는 일군들과 모범적 문답식학습문제들을 주제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보충질문제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도안의 당지도를 내려보내었다. 시, 군, 현 합기업소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학습반별로 해당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해당한 학습문제를 위주된 문답식학습경연준비가 다뤄졌던 생각이 든다. 학습이 극박되었다. 한 문제라도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서로 토론을 강화하면서 이익하게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도당위원회는 문답식학습경연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극복

하고 승벽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주초를 두었다.

우선 경연준비기간을 정해두고 그것이 정확히 적용되게 하였다. 비록 단체별경연에서 좀 앞섰다고 해도 평가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가를 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4월초에 시작된 문답식학습경연은 승자승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다. 이긴 단위들이 다음단계의 경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차례로 올라가서 결승을 겨룬다. 점수가 낮은 단위는 낮은 단위끼리 경연을 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게 된다.

좋은 점이 있었다.

서로의 승벽심을 높여주었다. 동시에 학습경연이 대중자신으로 간접하게 되는 당면한 영동투쟁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답식학습경연준비에서도 일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도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문답식학습경연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고 계기를 마련해주시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었다. 하여 그들의 사업

과 생활의 순간순간이 학습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사무실과 회의실을 비롯한 모임장소들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받아안고 신의 주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저교시판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관람교양마당을 새로 꾸릴 작정을 하였다.

1600여㎡의 면적에 있는 넓은 보도를 로크를 들어내고 인조석으로 된 블록을 새로 깔기 위한 공사를 작정할 때 제일 걸린 문제는 로크문제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새 일판을 벌려자니 로크가 더 긴장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최환영 동무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인조석과 로크를 함께 섞어서 깔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조직일군들과 당원진일군들이 배합작전을 잘 해나감으로써

서로의 기밀한 배합작전으로

신의주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에 하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받아안고 신의 주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저교시판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관람교양마당을 새로 꾸릴 작정을 하였다.

1600여㎡의 면적에 있는 넓은 보도를 로크를 들어내고 인조석으로 된 블록을 새로 깔기 위한 공사를 작정할 때 제일 걸린 문제는 로크문제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새 일판을 벌려자니 로크가 더 긴장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최환영 동무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인조석과 로크를 함께 섞어서 깔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조직일군들과 당원진일군들이 배합작전을 잘 해나감으로써

경에 하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받아안고 신의 주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의 첫걸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저교시판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관람교양마당을 새로 꾸릴 작정을 하였다.

1600여㎡의 면적에 있는 넓은 보도를 로크를 들어내고 인조석으로 된 블록을 새로 깔기 위한 공사를 작정할 때 제일 걸린 문제는 로크문제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새 일판을 벌려자니 로크가 더 긴장했던 것이다.

초급당비서 최환영 동무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인조석과 로크를 함께 섞어서 깔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조직일군들과 당원진일군들이 배합작전을 잘 해나감으로써

충정의 마음을 안고 참가하니 교양마당을 꾸리는 사업은 열흘도 되는 사이에 말끔히 끝나게 되었다.

이들의 투쟁은 신발생산에 참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어 3월 신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지금 초급당위원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편이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초급당위원회는 당조직일군들과 당원진일군들이 배합작전을 잘 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만포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명진동무는 시의 식료공장으로 나갔다. 기뻐했던 것과 달리 생산실태가 처연치 못했다.

그는 공장일군들에게 원인을 알아보았다.

《원료가 걸려 용베는 재간이 없습니다.》

《보장조각이 문제입니다.》

일군들의 입에서는 우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당책임일군은 문제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념과 사업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 부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에서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도 그만, 인민들이 생활상고초를 겪어도 그만인 일군들의 사상적 병폐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당 책임일군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을 위한 사상공세에서의 주타격대상을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념과 사업태도에 정해주는 깊은 뜻을 다시금 결감하게 되었다.

(말로는 늘 인민의 총복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조건타발을 앞세우는 일군들이 열이면 열하고 백이면 백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거듭한 당 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동무들도 <총복수첩>을 가지고 나왔겠지?》

순간 일군들은 안주머니의 <총복수첩>을 만져보며 머리를 떨구었다.

바로 2년 전 2월 어버이장군님의 동상모시사업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보내 주기를 위해 만포시인민들이

으며 원료문제를 풀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공방에서는 얼마후부터 기초식물들이 팽팽 생산되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은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공세의 불

시기고 있다.

김명학, 양창명, 최민철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자랑스런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해 어려운 일감을 도맡아안고 발이 닳도록 뛰었다.

김정철, 문국성동무들도 <총복수첩>을 거울 삼고 당조직일군들과의 배합작전을 잘 해나간면서 일군들의 심장에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주었다.

《자신을 보는 거울-〈총복수첩〉!》

바로 <총복수첩>과 더불어 이곳 일군들의 모습이 나날이 새로워지고있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채인철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침진강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사상관념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지난 2월말, 작업반별생산실적을 알아보던 초급당비서 김훈동무는 작업반들의 실적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데 따라 작업반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는데 작업반별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는데 작업반별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는데

순간 초급당비서에게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천군만군의 무기로 실려왔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각 작업반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왔다.

하지만 다른 작업반들에 비해 작업반별생산실적이 그리 높지 못한 실태는 초급당위원회가 작업반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더욱 힘써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었다.

초급당일군은 무엇보다도 작업반별생산실적을 높이고 그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를 스스로 재어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작업반의 실정에 맞는 사상교양의 집중조력, 연속조력, 명중조력을 들어내었다.

여기서 초급당위원회는 두가지를 중시하였다.

하나 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높이 내세워주시는 마시령스키장을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통한 교양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맑은 적적이고 맹세는 요란하게 다지지는 않았어도 묵묵히 자기 일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다른 작업반종업원들의 모범을 통한 교양이다.

때로는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일손을 같이하면서, 때로는 퇴근길도 함께 걸으면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간 사상교양사업들은 작업반별 초급일군들과

과 종업원들을 비상히 각성시켰다.

그들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고조준군이 힘차게 벌여지는 오늘에 작업반, 매 종업원들의 실천이 중요함을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분발하여 나갔다.

그렇게 되니 예로와 난관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똑같은 임무를 안고 치밀한 물적전을 벌려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지난 3월 말까지 생산계획을 넘쳐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실천투쟁과 생산실적을 높이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세가 좋다.

본사기자 최영길

자신을 보는 거울-〈총복수첩〉

만포시당위원회 일군들

준비한 백옥같은 흰 쌀이 장군님의 사랑으로 시간의 인민들,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

그 친필같은 소식에 접한 시인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결의를 다지며 하나같이 <총복수첩>을 만들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적일주의라는 관념에 <총복수첩>이 원신의 날과 말들을 기록하여 높은 실적을 내던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정이 식어가고있었는것이였다.

《우리가 풀고다니는 <총복수첩>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요, 수첩의 걸피마에 당의 사상관념전, 당정책옹위전의 참된 사상을 자기의 모습에 비껴 반사시킵니다!》

시당 책임일군은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주었는뿐 아니라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제의 힘으로 원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남모르는 밤길도 걸

을 어디에 먼저 지피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과 방침관철정형을 놓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지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총화하면서 일군들을 사상적으로 분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은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공세의 불

시작하였다.

이 사실은 시당위원회일군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공세의 불



충성열풍속에 일군들이 당정책을 해설하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희떠운 미사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남조선 괴뢰들은 더 큰 수치와 망신만 당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3월 23일 충청남도 태인의 안송사격장에서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라는것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남조선괴뢰들은 지금까지 숨겨고 있던 발사시험을 누락없이 언론에 공개하여 못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4월 5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괴뢰들이 외세의 기술을 전수하여 사거리를 500km로 늘린 탄도미사일발사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탄도미사일들을 다음에 실전배비하게 되면 항공복도체제 외한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해하고 있다.

이제 겨우 500km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나 한번 해보고 큰 일이나 친것처럼 희명계 놀아내는 괴뢰들의 표락시니도 가관이고 지금까지 숨기고있던 발사시험을 오늘에 와서 공개한 속내도 뻔하게 들여다보인다.

회국이 아닐수 없다.

이 말과 관련하여 같이 우리 전략군 회력단위들의 정상적인 로크트 발사훈련이 지난 2월하순부터 3월말까지 사이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때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우리가 발사한 로크트탄들이 서울한복판에 떨어지기라도 한것처럼 미극상전과 함께 칭을 들으며 못되게 놀아났다.

《유연결의위반》이요, 《도발》이요 하고 떠들면서 우리에게 대한 해로운 《크게 성공한것처럼》 여론에 공개하고 확산시키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조선괴뢰들이 무엇때문에 지금에 와서 발사시험소식을 그 그것도 《크게 성공한것처럼》 여론에 공개하고 확산시키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포병해상사격훈련에 대한 괴뢰들의 초라한 군사적대응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다 치른 다음에야 복을 치는

《뒤 북대응》,상대기 보지도 못하는 뒤골목에서 해대는 《뒤 주먹질》,앞에서 얻어맞고 《두덜거리는 식의 한 발사훈련이 지난 2월하순부터 3월말까지 사이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풀고다니는 <총복수첩>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요, 수첩의 걸피마에 당의 사상관념전, 당정책옹위전의 참된 사상을 자기의 모습에 비껴 반사시킵니다!》

시당 책임일군은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주었는뿐 아니라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제의 힘으로 원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남모르는 밤길도 걸

《뒤 북대응》,상대기 보지도 못하는 뒤골목에서 해대는 《뒤 주먹질》,앞에서 얻어맞고 《두덜거리는 식의 한 발사훈련이 지난 2월하순부터 3월말까지 사이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풀고다니는 <총복수첩>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요, 수첩의 걸피마에 당의 사상관념전, 당정책옹위전의 참된 사상을 자기의 모습에 비껴 반사시킵니다!》

시당 책임일군은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주었는뿐 아니라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제의 힘으로 원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남모르는 밤길도 걸

습지 않고 단행하는 남조선적이며 파멸적인 행동방식이다.

계정이란 아무것도 없는 남조선 괴뢰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남조선적은 이 기온과 파멸적인 행동방식에 무작정 추종하여 상전 이하라는대로 못되게 놀아내고있는 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이제에 임이 아니라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크트발사와 같은 자위권행사에 대하여는 시시때때로 도전이 없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당초 전사적전선도 없이 상전의 한갓 전경사냥개에 불과한 남조선괴뢰들의 처사에 대하여 크게 눈여겨본 적이 없다.

한것은 아무리 날쳐드는데 역시 개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동족매체에 환강이 되며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해담이있는 저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 되어가고있는것을 남조선괴뢰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희떠운 미사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에 대하여 합부로 결코고집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이제에 임이 아니라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크트발사와 같은 자위권행사에 대하여는 시시때때로 도전이 없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당초 전사적전선도 없이 상전의 한갓 전경사냥개에 불과한 남조선괴뢰들의 처사에 대하여 크게 눈여겨본 적이 없다.

한것은 아무리 날쳐드는데 역시 개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동족매체에 환강이 되며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해담이있는 저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 되어가고있는것을 남조선괴뢰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희떠운 미사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에 대하여 합부로 결코고집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이제에 임이 아니라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크트발사와 같은 자위권행사에 대하여는 시시때때로 도전이 없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당초 전사적전선도 없이 상전의 한갓 전경사냥개에 불과한 남조선괴뢰들의 처사에 대하여 크게 눈여겨본 적이 없다.

한것은 아무리 날쳐드는데 역시 개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동족매체에 환강이 되며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해담이있는 저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 되어가고있는것을 남조선괴뢰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희떠운 미사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에 대하여 합부로 결코고집지 말아야 한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로지리용품과 농사의 결약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앞구감자심기를 다그치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과정에서 소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향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앞구감자심기실적을 부쩍 올려냈다.

10여년전 봄날 번듯하게 토지정리된 도의 협동농장을 찾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구감자심기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앞구감자심기실적을 더 높이고 종자확보에 힘을 냈었다.

산천, 삼천에서 앞구감자심기를 제일먼저 끝냈다. 태란, 용진, 강명, 벽성, 은현, 신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을 듬뿍 낸 감자지들에 앞구감자를 정성껏 심었다. 연안, 청산, 배천등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10여일 남짓한 기간에 앞구감자심기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향해북도의 농촌들에서도 앞구감자심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도의 일군들은 감자종자를 충분히 마련하고 모든 농장들에서 감자종자생산설비를 기술적으로도 하도록 하였다.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시, 군들의 농업근로자들은 벼모판 씨뿌리기와 앞구감자심기가 겹쳐 로력이 긴장한 속에서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남다른 실적을 올렸다. 립산, 신계군을 비롯한 여러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두말없는 모범을 앞구감자심기를 끝냈다.

평양시, 남포시의 농촌들과 강원도, 평안남도의 농촌에서 앞구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작기를 철저히 보장하며 앞구감자심기를 심었다.

지금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앞구감자심기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불타는 한 마음으로 당면한 영농투쟁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연옥

최후승리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이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100여개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적극 지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며 미래의 날강도적대 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로마의 프레스TV방송, 우루파이신문 《라 후베르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즉시 《조선국방위원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립장 천명》 등의 제목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만마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핵을 포기하는 행동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행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군대의 인민적 투쟁은 계속되며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선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면책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 다고 경고하였다고 전하였다.

별가리아신문 《이스크라》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과연 침략적인 나라인가?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핵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침략적인 적이 없다.

다만 자체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 할뿐이다.

침략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책에도 끄떡없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대구조전쟁연습들을 당장 결어치워야 한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일치한 의사가 담긴 조선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는 국제적연대성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졌다.

벨라루스공산주의군로자당, 가나민족민주대회, 파키스탄 아와미민족당 인드주위원회,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와 나이지리아주제사상 연구 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0여개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

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연례변경 나호드카시위원회는 조선국방위원회 성명을 찬동한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결코 판개개선에 현혹되어 서먹을 거배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는 조선인민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일제를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영웅적인민이다. 미국은 조선을 독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반제반미투쟁에 전례 없이도 바로 치려해야 할것이라고 지탄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감자들을 가지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언어어단이라고 하면서 다른 주권국가들을 비방증상하기 전에 제일이나 바로 치려해야 할것이라고 지탄하였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엘》 인민통일공화국정당은 미제국 사회주의를 알살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지만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인 조선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미국은 남의 집안일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류빨리 포기하는 정책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후승리는 정의의 위해 투쟁하는 조선

인민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전로보병사단 《전투적위》 연례변경자주, 민주공화주제사상연구 진국위원회, 민주공화-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빠르카사회사 등 여러 나라의 단체, 기관에서 연대성협회와 시위, 항의행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연대성행사장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으며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합동군사행동의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결성서, 편지 등이 채택되었다.

《조선반도에서 손을 빼라!》, 《조선반도의 평화 만세!》 등의 반미, 반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폐하는 미호전세력들을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내외로 저들의 야심적인 미사일발사체수립책동에 필연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해오게 하는 주적이다.

조선반도에서 진짜 미사일위협가해자는 미국이다.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핵전쟁연습이 광범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약한 미국은 각종 군사훈련명목으로 핵미사일을 끌어들이고 훈련이 끝난 다음 그것을 털어두는 방법으로 핵무기배치를 다그쳤다. 남조선에 각종 핵미사일이 전개되어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을 핵경계안에 넣게 된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수많은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북한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는자들이 아무런 그 누구의 《위협》에

미사일위협장본인들의 추대

최근 미국회에서 2019년까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총 370억US\$를 들이밀 계획을 논의하고있다. 미국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우리의 《미사일위협》때문인것처럼 광고하고있는것이다.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예산문제와 관련한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감정 미군사령관은 조선의 탄도미사일사거리가 2024년이면 미국본토에도 도달할 정도로 늘어날수 있는것이라는 결론을 받고 만약 북조선이 현재의 미사일개발속도를 유지한다면 10년안에 미국본토에 닿을수 있다고 떠벌였다.

그는 조선이 보유하고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의 조선반도전역과 주요미군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은 현재 장거리탄도미사일연구개발사업을 강화하고있으며 미사일사거리를 미국본토까지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니 뭐니 하고 췌했다. 한 군부호전평은 국방예산축감은 조선반도위기의 상황을 대처한 미군의 대응능력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자기들을 위해 《안보》제목을 계속하겠는지 의문시하고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한편 미국방성 미사일방위국장도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중이라느니 뭐니 하며 아무세기를 쳤다. 예산축감문제로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호전세력들을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내외로 저들의 야심적인 미사일발사체수립책동에 필연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해오게 하는 주적이다.

조선반도에서 진짜 미사일위협가해자는 미국이다.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 남조선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핵전쟁연습이 광범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약한 미국은 각종 군사훈련명목으로 핵미사일을 끌어들이고 훈련이 끝난 다음 그것을 털어두는 방법으로 핵무기배치를 다그쳤다. 남조선에 각종 핵미사일이 전개되어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을 핵경계안에 넣게 된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수많은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북한공격작전들을 벌리고있는자들이 아무런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야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조선반도에서 미사일위협이 어디서 어디로 가해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털어놓고 말하여 미국이 비열하게 그 누구의 《위협》을 결코느꼈는가.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에 따른 저들의 무력강화책들을 합리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것은 미국의 새로운 지배전략이다.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세계체제를 위한 중요공안으로 보고있다. 군비축감을 떠드는 속에서도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한 미국방성은 미사일방위와 관련한 다음회계년도 군사예산으로 74억 5000만US\$를 지출하려 하고있다.

지난해에 미국은 우리의 그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하여 요격미사일을 추가배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2017년까지 완료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들이 미국본토방어를 위해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탄도미사일추적고성능레이더를 새로 배치한다. 현재 수많은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미주사부지대를 요격미사일을 추가배치한다. 판도에 미사일방위체계를 보장한다. 어쨌든 그 소란을 피우려는것은 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공격을 물론 지역의 잠재적인 적수들을 견제하려는 흉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핵전쟁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에 있다.

핵전쟁공격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할 나라는 없을것이다.

미국이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들어대는 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최담은자들의 괴뢰망상증이다. 우리는 그 어떤 공과와 방에도 다 준비되어있었다. 대하여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히 자위적성격을 띠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인적자로 우리적자를 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에 걸려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일 미호전세력이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찌 공격한다면 분명히 많은자들에 불소나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게 될것이다.

리 현 도

우리 나라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때로부터 4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영국군정직 연구협회, 영국주제사상연구 소조, 조선파의 친선협회 영국 지부가 얼마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74년 3월 21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세무제도를 완전히 없애는데 대하여》가 발표됨으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었다.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였

다. 조선인민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등 온갖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금에 실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이다.

조선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진것으로세 인민들의 생활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로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되었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판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세계 경제 사상

중국의 교부 대변인 평화에 유익한 일을 할것을 일본에 요구

중국의 교부 대변인 홍비가 1일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일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방위장비

중국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세무제도를 완전히 없애는데 대하여》가 발표됨으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었다.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였

다. 조선인민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등 온갖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금에 실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이다.

조선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진것으로세 인민들의 생활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로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되었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판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

중국에서 도서 《조선 동북해방전쟁지원실기》 발행

중국에서 도서 《조선 동북해방전쟁지원실기》가 새로 나왔다.

필자는 중국 통회사법학원 조선반도경제문화연구센터 주임 리명환이다.

도서는 조중 두 나라 관계발전사에 깊은 국제주의적의리의 력사적사실들을 자료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독자들에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있는 도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중국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용하신 불멸의 로고와 평도업적들이 수록되어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한문의 위협도 이렇듯 하지 않으시고 폭력이 그칠새 없는 조중경계지역에 나가서 사회사명원을 비롯한 중국의 혁명가들과 상봉하시고 조선이 민을 위한 후방이 될것이라고, 형세가 아무리 위험하고 곤란해진다고 하여도 중국동지들을 도울것이라고 크나큰 고무적힘을 안겨주시면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술적방도들을 밝혀주신 내용이 서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속에서 결핵이 만연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3월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해마다 약 100만명의 어린이들이 이 질병에 걸리고있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나라에서 1월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연령도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포함 12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90%에 달하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라의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서로 전파되고있다.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다. 조선인민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등 온갖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금에 실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이다.

조선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진것으로세 인민들의 생활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로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되었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판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발전도상나라들의 단합과 협조움직임

제육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작가

제육을 의미하는 어휘는 고대시기부터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는 제, 경, 거, 구기 등의 어휘를 썼고 고대중국은 양생과

같은 문단편을 의미하는 어휘를 썼다고 한다. 인류역사상 제육이란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은 프랑스의 이름난 철학자

세계보건기구는 이 나라에서 1월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연령도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포함 12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90%에 달하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라의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서로 전파되고있다.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다. 조선인민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등 온갖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금에 실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이다.

조선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진것으로세 인민들의 생활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로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되었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판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아벨 상의 유래

노르웨이의 수학자 아벨 (1802-1829)은 가난에서달리다가 27살때 결핵으로 죽었다. 방정식론을 가지고 수학사의 한계지를 장식한 아벨은 10대에 목사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많은 식구를 부양하면서도 대학교수의 꿈을 잃지 않고 수학과목 수학선생인 홀름보가 그를 적극 도와주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나라에서 1월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연령도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들의 수가 포함 12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90%에 달하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라의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서로 전파되고있다.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다. 조선인민은 각종 세금에서 벗어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등 온갖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금에 실로 커다란 사회적문제이다.

조선에서 세무제도가 완전히 없어진것으로세 인민들의 생활은 한계단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기적이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사랑의 정기로 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되었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판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